

자활센터 20대 女 ‘억’소리나는 횡령

곡성, 3년간 2억5000만원 빼돌려…경찰 수사 착수

곡성군이 위탁한 지역자활근로센터에서 20대 여직원이 수억 원대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돼 센터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곡성군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곡성 S기관 소속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3년여간 허위 서류를 만들어 재료비와 인건비 등 2억5000여 만원을 빼돌린 자활센터 총무과 소속 직원 김모(여·28)씨를 지난 18일 횡령 혐의로 곡성경찰에 고발했다.

이 자활센터는 곡성군으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하우스 농사, 간병인, 집수리 사업 등 11개의 사업을 운영하며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활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기관으로, 지난 2011년부터 위탁사업체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이곳에서 경리로 근무해 오며 11개 사업단의 운영비와 서류 정리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금 하기 위해 만든 신용카드 결제 통장이 월 단위로 금액 정산이 된다는 점을 악용,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내며 지역자활센터에 돈이 들어간 것처럼 송금처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지출 서류를 위조해 자신과 통장으로 돈을 넣고,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관련 서류를 파기하기도 한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곡성군은 첨보를 입수한 뒤 센터와 협동으로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성실한 태도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던 김씨는 “한 두번 저질리도 들끼지 않아서 계속 해왔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고, 횡령금액 중 1억 원 상당은 변제했다고 곡성군 관계자는 밝혔다.

이렇듯 3년간 수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새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관련부처도 당황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보통 1년에 한번씩 보조금 현황을 짚게 하는데, 그마저도 통장 잔액과 사업비 규모를 대충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갈 뿐, 모든 내역을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수·완도 등 차치단체 공무원이 거액을 횡령하는 등 계속해서 회계 관련 범죄가 이어지면서 허술한 감시 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공무원 서랍 속의 ‘축의금 장부’

안행부 나주시 감찰 발견
뇌물 의혹 혐의점 못찾아

나주시청 한 간부 공무원의 서랍에서 발견된 축의금 명단을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9일 전남도와 나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나주시 A국장 집무실에 안전행정부 감찰반이 들어다쳤다.

보안점검에 나선 감찰반은 열쇠가 잡기지 않은 A국장 서랍에서 액수와 이름이 적힌 리스트를 발견했다.

600여명의 이름이 적힌 이 리

스트는 지난해 11월 중순, 출가한 딸 결혼식에 축의금을 준 사람의 명단이었다.

일부에서는 명단이 아닌 돈 봉투가 발견됐으며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50만원 이상 고액을 전달한 13명에 대해 업무와의 연관성을 조사했으나 별 다른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장은 “50만원 이상은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다. A국장은 을 초 전남도 인사에서 서기관으로 승진, 나주시로 자리를 옮겼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고교생 면허증 주워 렌터카 운전 ‘꽝’

내워침 8862 김종득

20일 밤 전남대 치과병원 앞 삼거리서 3명 사상

렌터카 회사 신원 확인 않고 차 임대…사고 불러

곡성군이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승용차를 임대한 뒤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해당 렌터카 회사에서는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10대 고교생에게 차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전

남대 치과병원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고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의 K5 승용차와 구모(47)씨의 옵티마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K5 뒷좌석에 탔고 있던 이모(18·광주 모 고교 3년)군이 숨졌으며, 고군 등 2명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고군은 이날 전남대 인근 도로에서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광주 T렌터카에서 승용차를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고군은 사고 30분 전 전남대 치과 병원 앞길에서 출장 렌터카를 통해 차를 임대한 뒤 차를 몰고 전남대를 들어갔다가 숨진 이군 등 2명을 태우고 집에 바래다 주려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군은 그러나 경찰에서 “차를 빌린 뒤 전남대까지 차를 몰고 갔으나 친구들을 태우고 나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고군이 운전 중 핸들 조작 미숙으로 마주 오던 옵티마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렌터카 회사 측이 운전면허증만 보고 고군에게 승용차를 빌려준 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고군이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내기 위해 차 안에서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화물차·승용차 추돌 6명 사상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께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인근 교차로에서 1t 화물차와 승용차가 추돌해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장晦에서 보성방면으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측 회령리쪽에서 우측 벽교리방면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태고 있던 문모(76)씨가 사망하고 문씨의 아내 손모(여·72)씨가 중상 을 입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설거지 안한다” 남편 목 할퀴에
성녀필 ○설거지를 안
해웠다는 이유로
말 다툽 끝에 남편
의 목에 상처를 입힌 40대 여성이 경
찰서행.

○2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박모(여·42)씨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남편(50)과 설거지 문제를 놓고 말 다툽을 하던 중 양 손톱으로 남편의 목을 할퀴었다는 것.

○남편 신고로 경찰에 입간된 박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아침식사 후 설거지를 해주기로 했는데, 징계를 대면서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났다”고 진술.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우주강국을 향한 꿈

‘2013 광주진로전학박람회’ 사흘째인 21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 ‘우주강국을 향한 꿈’ 부스에서 학생들이 자동망원경으로 천체 사진 관측 체험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ha@kwangju.co.kr

‘야동 교장’ 직위해제

전남교육청, 여교사와 학부모에 애한 동영상 전송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로 애한 동영상을 보낸 조등학교 교장이 직위해제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여교사와 학부모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애한 동영상을 보낸 광양 모 초등학교 A교장 체가 광양교육지원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A교장의 교단 배제를 요구해왔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A교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정웅기자 jwpark@kwangju.co.kr

‘태안 해병대 캠프’ 인솔교사 입건·교장 직위해제

해양경찰, 여행사 압수수색

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교장과 다른 인솔교사 등에 대해서도 체험 활동 시 현장에 있었던지와 학생들의 안전 관리를 충분히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해병대 체험 캠프를 실제로 운영한 여행사 K사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교육부는

광주사대부고 2학년 부장 교사인 김씨는 교사 6명과 함께 지난 17일 학생 198명을 충남 태안 안면도 해양 유스호스텔로 데려와 해병대 리더십 체험을 위탁하면서 학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진모(17)군 등 5명

/연합뉴스

Korea
Be Inspired

정자 소성온도 1300°C를 상징하는 강진군 브랜드

**제41회
강진 청자 축제**
흙, 물, 그리고 인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최우수축제
The 41st Gangjin Celadon Festival

2013.7.27. 토 ~ 8.4. 일

전라남도 강진군 고려청자 요지 일원

주최 강진군 주관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한국관광공사 농협은행 보해양주증권 HITEJINRO

<http://gangjinfes.or.kr>
1688-1305